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11. 수. 오전 11시 이후	
담당	장하나	010-3693-3971
배포일시	2018. 4. 11. 수	총 6매 (별첨 0건)

18년생 김지영에게

경력단절·독박육아 말고 ‘성평등 헌법’ 을!

- 정치하는엄마들, 성평등복지국가 개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사회 : 77년생 장하나)
 - 발언 1 : 82년생 김신애
 - 발언 2 : 81년생 이고은
 - 발언 3 : 86년생 조성실
 - 발언 4 : 75년생 이진옥
 - 발언 5 : 82년생 강미정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회를 배경으로 엄마들이 딸들에게 ‘성평등 헌법’ (대형 공)을 전달함.

<발언 1>

82년생 김신애

안녕하세요. 저는 82년생 김신애입니다. 5살, 4살 두 아이의 엄마이며 재택근무자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대기번호 받아두고 발을 동동거려본 경험이 있는 엄마입니다. 조부모의 양육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 많은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엄마’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등과 존엄, 인권보호 등 우리가 촛불을 들고 모여 외쳤던 소망들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게 것에 매우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된 후 여성들의 경력 단절 부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개헌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만 되어야만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엄마가 된 후로는 아이를 키워야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져 전공, 경력과는 무관한 일을 택해야만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도 승진에서 누락되고, OECD 가장 큰 남녀 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금융권 채용 비리에서 보이듯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채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두 아이를 낳은 저를 보고 주위에서는 ‘애국’ 했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애국’ 한 저에게 돌아오는 건 맘충이라는 혐오와 앞뒤 짝 막혀버린 자아실현의 단절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유난히 자주 아팠습니다. 연년생이라 그런지 첫째가 아프고 나면 둘째가 아프고, 둘째가 다 나오면 또 첫째가 아픈 사이클이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퇴근이 있고 야근이 있는 직장에서 일 할 수 있었을까요? 적성을 찾아, 경력을 찾아 일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의 도움 없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제 자신을 갈아 넣는 것과는 같았습니다. 만약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연근무가 허용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럼에도 불이익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지난해 신학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이 퇴사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경쟁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노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는 보호받지 못하고 혐오의 대상만 되는 약자 중 약자였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벽이 너무 높고 견고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에는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나 출산 후 그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여성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채용비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도 채용부터 남녀차별이 발생합니다,

배운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 또한 아이를 낳고는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주 아프니까... 어린이집이 마음 같지 않으니까요.

엄마가 되어도 그 전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개헌안을 촉구합니다. 엄마라서 경력을 단절시켜야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연근무를 허용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양육과 가사에 참여하는 것을 이번 개헌안에 명시하십시오. 직업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양육과 가사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독박육아’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처럼 조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인 활동의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십시오. 한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행위를 더이상 부모만의 몫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국가존속을 위한 출산과 양육의 몫은 국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헌안에 명시하여 주십시오.

야근에 시달려 아이와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없고, 아이가 아파도 맘 편히 병원에 함께가지 못하는 극한 노동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비율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초저출산국에 맞게 여성 문제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해 대기번호를 들고 동동거린다면, 터무니없게 비싼 유치원비에 ‘하나만 낳아도 겨우 키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2년생 김신애. 저의 시대에 남녀 간 임금차별, 정규직 채용 불이익, 출산 후 여성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양성평등에 대한 개헌안을 추가시키고, 야당은 개헌안을 독재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십시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30년 후에 제 딸이 저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82년생 저는 현시대의 엄마로서 한걸음 더 나아진 사회를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출산과 육아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단순한 저의 욕심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발언 2>

81년생 이고은

저는 81년생 이고은입니다. 더불어 15년생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8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2005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너희가 어른이 되면 남녀 구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될 것” 이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이라고. 그래서 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꿈꾸었습니다.

2005년에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고 정확히 10년 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엄마가 된 지금의 제게 어린 시절 어른들의 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제게 퇴사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회사도 있는 마당에, 누군가에게 제 처지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박육아를 감당하며 풀타임으로 일하다 보면, 회사일도 육아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등바등하는 미래가 뻗어 눈에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류 인력, 집에서는 비정한 엄마가 되는 현실을 못 견딜 것 같아, 회사를 등지고 집으로,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퇴사가 결코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꿈꾸던 직업과 직장을 제 스스로 관두는 마음은 상상 이상으로 쓰리고 괴로웠습니다. 공부하고 일만 하며 살던 81년생 이고은이 갑작스럽게 집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반강제적으로 잃어버리고 타인을 돌보고 뒷바라지하는 존재로만 남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된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제게 “엄마가 된 행복” 만을 강요하는 사회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성이라는 신화 앞에, 2018년의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은 사회적 자아를 잃더라도 오로지 가정을 위한 천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회 속에서 이 폭력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만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남편을 보면, 결혼 전이나 아이가 없던 신혼 때보다 힘겨워 보입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은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지워집니다. 아이들의 경쟁력이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소비와 경험으로 대체되는 오늘날, 남성의 짐은 과거에 비해 더욱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3.8%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돌봄을 담당할 대체자가 없는 경우 직장을 관두고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거의 여성의 몫이 됩니다. 남성은 모든 경제적 짐을 홀로 감내하는 고통을 끌어안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87년 체제는 이미 30년 전의 서사입니다. 정치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을지언정, 삶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한 구 체제입니다. 인간 개인의 삶 면면을 돌보지 못하는 87년 체제의 한계는 여실합니다. 소득은 양극화되었고, 비정규직은 넘쳐나고, 인간의 삶은 흔들립니다. 인간을 소외시키는 구조 속에서 약자는 도태되고, 착취 받고, 고통에 내몰립니다. 여성의 지위는 30년 전에 비해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지금이 여성 상위시대라고 조소하지만, 저는 그런 목소리가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고통 받는 동시대인들의 처절하고 슬픈 외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가 힘들고 괴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만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

서 내놓은 개헌안은 정작 국민의 삶 면면을 변화시킬 단초를 놓치고 있습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안은 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안은 여전히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멀쩡한 성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동일한 법적, 인격적 주체로 보지 않고 언제든 이류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제 말은 결코 뼈뺀 시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뤄져온 여성보호 정책은 결과적으로 여성혐오의 화살이 되어 여성의 삶을 겨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5년생 딸이 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13년생 제 아들이 제 남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미투’를 외치거나 제 아들이 ‘여성혐오’를 외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소설 속 82년생 김지영의 저항이었지만, 현실의 82년생 김지영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가 되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엄마가 되어 당당하고 자랑스럽다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권은 수많은 82년생 김지영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합니다. 불충분한 개헌안도 모자라, 개헌을 저지하려는 정치인들의 세력 놀음에 우리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82년생 김지영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기본권 충분히 보장한 ‘성평등 헌법’으로 국민의 삶을 보장하라!

<발언 3>

86년생 조성실

86년생 조성실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산책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말씀.
“야도 꽃 예쁜 걸 알고 여기 맘껏다고.”

강아지가 주저앉은 곳은 훑날리는 벚꽃 앞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 앞이었습니다.
“봄꽃이야 기껏 열흘 폼자 지지. 이 아이들이야말로 종일 폼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냐.” 고. 강아지도 그걸 알고 집에 안가고 꽃밭에 눌러앉아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봄꽃축제가 한창인 이 때 저는.
세상의 모든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어떤 계절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마란 이름이 주는 무게와, 환희와 경탄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년 4월 정치하는 엄마가 되고부터 저는 매일을 정치하는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글을 쓰고 발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회에 갑니다. 엄마들 각자의 잃어버린 이름과 아이들의 잃어버린 행복을 위해 싸웁니다. 이것은 비단 엄마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양육자들의 잃어버린 자리를 위한 싸움이고 실종된 조부모의 황혼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싸움이고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싸움입니다.

저 뿐 아니라 수많은 엄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과 생애와 아이들을 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 시대의 엄마뿐 아닙니다. 이 땅을 살다간 모든 엄마들이 그야말로 뼈 빠지게 착취당하듯 살아왔습니다. 그런 엄마들이 오늘 굳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18년생 김지영들에게 경력단절과 독박육아 대신 성평등 헌법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주의 개헌 운운하며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개헌 반대 세력들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요즘 터져 나오는 미투 열풍에 숨죽인듯 몸을 사리거나 적극적으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수많은 제도권 정치인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가는 곳마다 초저출산 위기론을 역설하는 정치인들의 모습도 봅니다. 적폐 청산을 외치며 촛불 과업을 완성하라고. Mb와 삼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여성의 문제 엄마들의 문제는 차후의 일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적폐가 누구입니까?

초저출산의 진짜 원흉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사회의 진정한 불순세력입니까?

여자만세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여성 지자체후보 우선공천 반대 연판장을 돌리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끊임없이 적폐를 타자화 하고

자신 안에 존재하는 공고한 적폐성을 성찰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혼인율을 높여야 할지 출산율을 높여야 할지 고민된다며 초저출산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국회의원들.

미투를 지지한다면서도,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를 회피하고 최소한의 남녀동수 개헌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남성 의원들.

여성의 대표로 엄마 대표로 자신을 마케팅 하지만, 진정으로 여성과 엄마 문제로 씨름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여성 의원들.

이들이야말로 시대의 진보와 우리의 미래를 저해하는! 그야말로 왜곡하고 민심을 호도하는

진정한 적폐요, 원흉이고, 불순세력 아닙니까?

이제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의원들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다간 솔한 엄마의 이름, 그 가치를 안다면. 필사적인 마음으로 정당의 가치 진영의 가치를 떠나 한 마음으로 개헌에 임하십시오. 18년생 김지영에게 “복지국가, 성평등 국가, 적극적인 아동권이 보장“된 2018판 헌법을 위해 힘쓰십시오.

이 땅의 엄마들에게 이 문제는,
자아실현의 의미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고
인간존엄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모성보호관련 개념으로도 충분하다고 발뺌하는 의원들에게 외칩니다. 아동의 기본권, 성평등, 국가의 돌봄 책임이 보장된 개헌을 반드시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결국, 역사는 진보할 것입니다. 이 땅의 엄마들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는 끝내 한걸음 더 내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생사와 생존 일자리에 대한 박탈권이 아닙니다. 역사의 진보에 이바지 할 것인지 아닌지, 동참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영광스러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어젯밤, 간만에 아이들을 재우고 한참을 옆에서 아이들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습니다. 훗날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날들은 언제로 기억될 것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 시절이,

제 생애 가장 빛나고 찬란하고 그리운 시절이 될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아이를 돌보고 엄마의 정치를 계속합니다. 하루에 수십번씩 아이들이 흩어놓은 밥알을 닦고, 매일 같이 아이들 재우고서야 밀린 집안 일을 하고 글을 쓰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이 날들.

18년생 김지영들은, 그리고 저의 두 아들을 비롯한 18년생 남자 아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정치하고 기뻐하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응답하라!

<발언4>

75년생 이진옥

<발언5>

82년생 강미정

여기 18년생 김지영이 국회 앞에 와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 이 아이가 보기에 사랑받고 풍요롭게 자라니 행복할 거라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할 헌법상의 아동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찌 행복할 거라 단정하십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는 심각합니다. OECD 국가 중 아동의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도 최하위,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뉴스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미비한 아동권의 법적 근거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서까지 더하면 18년생 김지영들의 삶의 질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들에게 사람답게 자랄 권리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30년만에 이뤄지는 10차 개헌은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인격체임이 헌법에 명시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제32조 제1항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데 그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동 인권을 지키기에는 너무 미비합니다. 자문위 안에 따라 아동권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가와 사회공동체로부터 보살핌 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사람답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고 한 사람의 오롯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18년생 김지영’에게 독박육아·경력단절 아닌 ‘성평등 헌법’을 줄 것이다!

□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바뀐 지 30년이 지났다. 87년 체제의 한계는 사회 전역에서 지적된 지 오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무분별하게 도입된 비정규직 차별 문제, 2013년 초 남양유업 사태로 대두된 대기업 갑질 문제, 이명박 정권이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를 양산함으로써 심화된 교육양극화, 최근의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성폭력의 일상화 등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할 적폐는 산더미다. 그와 더불어 87년 체제는 ‘82년생 김지영’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10차 개헌에 요구하는 것은 성평등-복지국가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아이들, 즉 ‘18년생 김지영’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 새 헌법이 개별 법률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자리 잡는데 수 십 년이 걸릴 것이다. 즉 10차 개헌은 ‘82년생 김지영’이 아닌 ‘18년생 김지영’을 위한 개헌인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성차별 채용 비리가 밝혀졌고, 지난해 말에는 MG구미새마을금고가 여성직원에게 대해 결혼과 동시 강제퇴사 시킨 사건이 폭로되었고, 대형병원에 만연한 ‘임신순번제’도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기혼 여성 특히 엄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사건도 사고도 아닌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공동운명일 뿐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¹⁾ 첫째 자녀 출산 시 경력단절 비율은 공무원 11.2%, 민간기업 종사자 49.8%, 비정규직 71.1%에 달한다. 즉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은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관두고 있다. 공무원의 경력단절 비율과 비교하면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자발적 퇴사 즉 사회적인 부당해고에 직면한다는 뜻이다. 87년 체제는 여성의 일 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모성권과 아동권 어느 하나 보장하지 못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원 75%, 민간기업 종사자 34.5%, 비정규직 1.9%로 엄마의 직업에 따라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극심한 차별 상태에 놓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을 국가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 87년 체제가 대한민국 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했는지는 몰라도, 여성의 노동권을 지키지는 못했다. 2009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처음으로 남성을 앞지른 이후 2015년 현재까지 격차를 점점 벌어지고 있다.(남성 67.3%/여성 74.6%)²⁾ 반면 2017년 12월 현재 성·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20대 고용률은 55.8% 대 59.9%로 여성이 앞서고 있으나, 30대 고용률 남성 90.3% : 여성 59.2%, 40대 고용률 남성 92.6% : 여성 65.6%로 여성 노동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통계수치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³⁾ 교육권과 노동권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정치권이 ‘출산율’ 자체에 매몰되어 있으면 저출산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과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의 인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맘충 논란이나 미투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 현상으로 직결되고 있음은 말 할 것도 없다.

□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3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해야 만이 6월 개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개헌저지선은 98석이다. 의석수 116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어제(10일)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공동위원장 김무성·김문수·이재오)’ 를 가동하고 장내·외 결사투쟁을 선언한 것이 한낱 정치쇼에 불과한 까닭이다. 정상적인 국회 일정에 따라 개헌안을 심의·부결시켜도 될 것을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독재 개헌, 관제 개헌이라 하더니 급기야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궤변으로 속보이는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평균재산이 55억으로 자유한국당(43억)보다 많은데 생산수단 및 토지 국유화가 될 말인가.

□ 우리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국회의 개헌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상의 성평등 조항이나 아동권 조항은 지난 1월 발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보다 후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 안은 ‘제15조제1항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한다. 제15조제2항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등 성평등 가치를 강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안은 ‘제33조제5항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3조제6항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되어있다. 즉 여성의 노동권을 연소자와 마찬가지로 보호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87년 체제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 또한 자문위 안은 아동권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제16조제1항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제3항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제4항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부양이나 복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이며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안은 ‘제36조제1항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는데 그치고 있다.

□ 기본권 개헌은 립서비스가 아니다. 우리는 △성평등 개헌 △복지국가 개헌 △아동권과 돌봄권(돌봄 받을 권리)을 헌법상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가사노동·육아노동·간병노동과 같은 돌봄과 살림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복지국가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특히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엄마’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성평등 개헌을 해야 한다. 우리는 ‘18년생 김지영’이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10차 개헌이 되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아동의 주권과 행복추구권과 놀 권리와 생명권과 안전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10차 개헌으로 ‘18년생 김지영’이 더욱 행복하고 자유롭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결사투쟁을 해야 할 사람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이 땅의 엄마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다.

□ 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멋지다. 우리는 엄마라서 행복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언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국민투표로 미래세대에게 성평등-복지국가 헌법을 줄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표 4.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경력단절 경험

(단위: %, 명)

구 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명)
	소계	근로시간 줄었음	근로시간 줄이지 않음		
전체	55.4	5.9	49.5	44.6	100.0(4,119)
당시 직종($\chi^2=133.9^{***}$)					
관리직·전문직	64.5	7.5	56.9	35.5	100.0(1,368)
사무직	53.2	3.1	50.1	46.8	100.0(1,757)
서비스직	46.1	9.5	36.6	53.9	100.0(431)
판매직	45.5	9.4	36.0	54.5	100.0(286)
기타	48.9	6.9	42.0	51.1	100.0(276)
당시 종사상지위($\chi^2=203.7^{***}$)					
비임금근로자	69.0	20.9	48.1	31.0	100.0(455)
상용근로자	58.2	4.3	53.8	41.8	100.0(3,104)
임시일용근로자	28.9	2.7	26.3	71.1	100.0(559)
당시 직장유형($\chi^2=274.4^{***}$)					
공무원·국공립교사	88.8	7.2	81.6	11.2	100.0(499)
정부투자·출연기관	72.5	2.2	70.3	27.5	100.0(91)
일반회사·기타	50.2	5.8	44.4	49.8	100.0(3,52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1. 첫째아 출산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특성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2011.1.1. 이후 출생아인 경우)

(단위: %, 명)

구 분	전체 여성			비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		
	사용	미사용	전체(명)	사용	미사용	전체(명)	사용	미사용	전체(명)
전체	41.1	58.9	100.0(788)	67.1	32.9	100.0(471)	2.2	97.8	100.0(316)
당시 직종	$(\chi^2=16.4^{**})$			$(\chi^2=4.8)$					
관리직·전문직	46.8	53.2	100.0(278)	68.1	31.9	100.0(191)	1.1	98.9	100.0(87)
사무직	41.0	59.0	100.0(368)	65.8	34.2	100.0(222)	3.4	96.6	100.0(146)
서비스직	22.7	77.3	100.0(75)	58.6	41.4	100.0(29)	-	100.0	100.0(45)
판매직	29.0	71.0	100.0(31)	90.0	10.0	100.0(10)	-	100.0	100.0(21)
기타	45.7	54.3	100.0(35)	78.9	21.1	100.0(19)	5.9	94.1	100.0(17)
당시 종사상지위 ¹⁾	$(\chi^2=74.9^{***})$			$(\chi^2=26.8^{***})$					
상용근로자	46.9	53.1	100.0(684)	69.5	30.5	100.0(452)	3.0	97.0	100.0(232)
임시일용근로자	1.9	98.1	100.0(103)	11.1	88.9	100.0(18)	-	100.0	100.0(84)
당시 직장유형	$(\chi^2=71.1^{***})$			$(\chi^2=10.3^{**})$					
공무원·국공립교사	75.0	25.0	100.0(116)	78.5	21.5	100.0(107)	30.0	70.0	100.0(10)
정부투자·출연기관	66.7	33.3	100.0(15)	83.3	16.7	100.0(12)	-	100.0	100.0(3)
일반회사·기타	34.5	65.5	100.0(656)	63.1	36.9	100.0(352)	1.3	98.7	100.0(304)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6

대학진학률

(단위 : %, %p)

	대학진학률 ¹⁾				전문대학 ²⁾			대학 ²⁾³⁾		
	여학생	남학생	차이 (남-여)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1991	33.2	32.6	33.7	1.1	11.7	12.7	10.9	21.0	19.6	22.3
1992	34.3	33.1	35.3	2.2	11.9	12.8	11.2	21.9	19.9	23.7
1993	38.4	36.7	39.9	3.2	13.2	13.9	12.6	24.6	22.3	26.8
1994	45.3	42.9	47.4	4.5	16.0	16.9	15.2	28.6	25.6	31.5
1995	51.4	49.8	52.8	3.0	16.7	18.0	15.6	34.2	31.5	36.7
1996	54.9	53.1	56.7	3.6	18.0	19.4	16.8	36.4	33.3	39.3
1997	60.1	57.7	62.4	4.7	19.1	19.4	18.9	40.5	38.0	42.8
1998	64.1	61.6	66.4	4.8	21.3	21.7	21.0	42.2	39.5	44.7
1999	66.6	63.9	69.2	5.3	21.3	21.5	21.0	44.9	42.0	47.7
2000	68.0	65.4	70.4	5.0	22.2	21.5	22.9	45.3	43.5	47.0
2001	70.5	67.6	73.1	5.5	23.4	22.6	24.1	46.5	44.7	48.2
2002	74.2	72.4	75.8	3.4	22.5	21.9	23.1	51.1	50.1	52.0
2003	79.7	77.8	81.5	3.7	21.8	21.4	22.2	57.5	56.1	58.8
2004	81.3	79.7	82.8	3.1	21.8	21.7	21.8	59.0	57.5	60.4
2005	82.1	80.8	83.3	2.5	23.2	23.6	22.8	58.3	56.7	59.7
2006	82.1	81.1	82.9	1.8	23.4	23.4	23.4	58.1	57.3	58.8
2007	82.8	82.2	83.3	1.1	24.2	24.0	24.3	58.1	57.7	58.4
2008	83.8	83.5	84.0	0.5	24.5	24.6	24.5	58.9	58.6	59.2
2009	81.9	82.4	81.6	-0.8	25.9	26.7	25.2	55.5	55.1	55.8
2010	79.0	80.5	77.6	-2.9	24.6	26.0	23.4	53.6	53.8	53.4
2011 ⁴⁾	72.5	75.0	70.2	-4.8	25.8	27.5	24.3	46.0	47.0	45.1
2012	71.3	74.3	68.6	-5.7	25.1	27.2	23.2	45.6	46.6	44.8
2013	70.7	74.5	67.4	-7.1	24.0	26.3	21.9	46.2	47.7	44.9
2014	70.9	74.6	67.6	-7.0	23.6	25.7	21.8	46.6	48.3	45.1
2015	70.8	74.6	67.3	-7.4	23.4	25.2	21.8	46.7	48.8	44.8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진학률은 당해년도 졸업자 중 국내·외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재수생 미포함)

2) 국내 진학자에 한함

3)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4) 2011년부터 4월 등록자 기준(중전은 2월 합격자 기준)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성/연령별 고용률(%)

남자	계	70.8	여자	계	49.7
	15 - 29세	40.3		15 - 29세	44.3
	15 - 19세	7.1		15 - 19세	9.3
	20 - 29세	55.8		20 - 29세	59.9
	30 - 39세	90.3		30 - 39세	59.2
	40 - 49세	92.6		40 - 49세	65.6
	50 - 59세	87.2		50 - 59세	61.7
	60세 이상	50.2		60세 이상	27.7
	15 - 64세	76.0		15 - 64세	56.4
	15 - 24세	23.5		15 - 24세	31.2